

낭만적인 영화소풍 선사 '무주산골영화제'

토킹시네마 · 산골토크 · 산골콘서트 · 관객과의 대화 등 프로그램 · 게스트 명단 공개

영화와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2023. 6. 2. ~ 6. 6.)가 올해 다양한 토크, 공연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영화제를 찾는 게스트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해, 10주년을 맞이하여 첫 선을 보였던 '토킹시네마' 프로그램이 올해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토킹시네마'는 두 명 이상의 영화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가 함께 하나의 주제에 대해 유쾌하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 또는 집단 토크 프로그램으로, 영화비평, 영화 연출, 음악 또는 영화 제작과 관련된 주제에서부터 동시대 영화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까지 다채롭게 다뤄진다. 올해에는 총 6개의 주제 아래 선정된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와일드 투어)<이마 베프>(어느 멋진 아침)<스즈메의 문단속>(더빙) 그리고 OTT 웹 시리즈 <악한영웅 Class 1>가 상영된다. 각 영화 상영 후에는 총 19명의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각의 영화와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토킹시네마' 프로그램은 영화를 보는 것 이상의 영화적 체험의 장으로써 관객들에게 또 한 번의 뜻 깊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영화 상영 후 영화 전문가가 진행하는 영화 해설 및 강연 프로그램인 '산골토크'가 올해 <조이랜드>(당나귀 EO) 두 편의 영화로 관객들과 이야기 나눈다. 제7회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심사위원상 수상작 <조이랜드>(2022)는 종교적이고 가부장적인 파키스탄 사회에서 억압받는 젠더 이슈를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현



산골콘서트 메인스테이지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매우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고 품위와 도덕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내 상영금지 조치를 받아 국제적 이슈를 불러일으킨 화제작이다. 이번 산골토크에는 <조선명탐정>시리즈, <의뢰인> 등을 제작한 영화사 청년필름의 대표이자 <두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2012), <메이드 인 루프탑>(2020)을 연출한 김조광수 감독이 자리해 관객들에게 폭넓은 영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매년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뮤지션 공연/아외 토크 '산골콘서트'의 올해 라인업이 쟁쟁하다. 무주드나무운동장에서 열릴 '산골콘서트' 프로그램에는, 뮤지션 김필을 비롯해 멜로망스, 적재, 데이먼스 이어, FROMM(프롬), 전진희, 박지우가 자신만의 음



산골콘서트 낭만스테이지

악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흥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넥스트 액터' 변요한과 배우연구소 백은하 소장이 자리해 관객들과 솔직 대담한 이야기를 나누며, 무주산골영화제의 유일한 경쟁부문 '청' 색션의 상영작 9편의 감독들이 자리해 다채로운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영화적인 시간을 선사한다.

한편 5일간의 영화제 기간동안 영화 상영 후, 총 18건의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된다. 먼저, 관객과의 대화에는 '청' 색션 상영작의 모든 감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배우 권유리, 배우 현우석, 배우 공민정, 배우 김주령 등을 포함해 총 55명의 게스트가 참여해 무주산골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현대음악발전협회,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 민간 소공연장 지원사업으로 추진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3 민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현대음악발전협회(대표 김주환)가 '2023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더 바인홀 레코드 가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소공연장 지원사업은 도내 민간 소공연장을 지원해 창작 기반 구축 및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현대음악발전협회 등 총 7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현대음악발전협회는 재즈보컬리스트인 김주환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재즈 특화 소공연장 '더 바인홀(전주시 삼천동 소재)'을 거점으로 지역 관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품격 재즈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세계적인 재즈 아티스트 '에멧 코헨 트리오'의 첫 내한 공연을 기획해 만석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공연을 바탕으로 지역 관객의 문화 향유 확대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김주환 대표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고품격 재즈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금요일을 선사해드리고 싶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미니재즈페스티벌인 만큼 더욱 풍성한 재미와 깊은 감동을 선사해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2023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은 오는 6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더 바인홀(전주시 완산구 안평로 14)에서 매일 첫 번째 금요일과 마지막 금요일 저녁 7시30분마다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티켓 가격은 1회권 3만원, 3회권 7만원, 5회권 9만원, 7회권 12만원 10회권 15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예매 및 관련문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더바인홀' 검색 후 채널추가를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품 경매 '명인명장 공예옥션' 진행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는 26일 무형문화재의 작품을 경매하는 '공예옥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예옥션은 공예분야 판로확대와 소비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인들의 작품을 실시간 소통을 통해 판매하는 경매 행사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비대면 '골라보쇼 공예옥션'을 시작으로 해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공예품 경매 '명인명장 공예옥션'은 해가 거듭되면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고, 경매시장에서 공예 작품이 가지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경매에 오르는 작품은 △색지장 김해미 자 장인의 '달항아리' △우산장 윤규상의 '지

양산' △전주나전장 최대규의 '나전수저' △선자장 방화선의 '단선' △방짜유기장 이종덕의 '좌중, 원형접시세트' △낙죽장 이신일의 '백선', '매화선' △목조각장 김중연의 '까치호랑이' △공기장 안시성의 '깊은 불세트' 등 총 10점이다. 작품 감정가는 8만원(좌중)부터 100만원(달항아리)까지 다양하다.

경매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과 현장 판매가 동시에 진행된다. 사회자가 입찰가를 제시하면 응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최종 1명의 응찰자가 나올 때까지 경매를 진행한다.

온라인 참여자는 댓글로, 현장 참여자는 현장에 준비된 소품을 활용해 응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제9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4년만에 현장대회로 재개

군산시는 가천문화재단(설립자 이길여·이사장 윤상태)이 자리하는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을 개발하고 상상력을 북돋기 위한 '제9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공모전으로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다시 현장대회로 재개한다.

'가천그림그리기대회'는 가천길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교육청,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 대회다.

4년만에 현장대회로 열리는 대회는 오는 6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고, 시상도 각 부문별로 이뤄진다.

이번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참가비는 없고, 대회당일 작품을 제출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도화지는 저학년(유아부~초등학교 3학년)과 고학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을 구분하여 대회일에 현장에서 주최측이 제공한다. 참가자는 물감, 붓, 크레파스, 못자리, 간식 등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서 오면 된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유아, 초·중·고 구분, 각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선정)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약 500여 명을 선정하고, 7~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전라북도지사상(각 부문 대상)을 비롯해 전라북도교육감상, 군산시장상, 군산시의회의장상, 군산교육장상 등 다양한 상장과 작품집, 부상이 제공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주문화재단,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 참여 예술인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3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술로GREEN전주'에 참여할 예술인(단체)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구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예술활동으로 알리고자 고민하는 사업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와 지구환경을 주제로 예술 창작활동을 진행할 전주 연고 공연·다원 분야 예술인(단체)을 1팀 선정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자(팀)는 7월부터 12월까지 공연·다원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지역에서 실현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미래전략팀(070-7711-37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6월 11일까지 '랜드스케이프 페어링'展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주 디자트 가구백화점 1층과 5층 전관에서 '랜드스케이프 페어링'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전은 재단 관광자원 DB 구축사업의 연구 결과물과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전, 특별전, 기획초대전 등 6개 색션으로 구성, 총 3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풍경사진과의 네 가지 페어링' 주제전은 기존 재단에서 실시한 '전라북도 관광자원 DB구축사업'을 통해 축적한 전북의 풍경을 보여주고, 참여 작가 7인의 다양한 시각을 담은 작품을 전시해 전라북도 문화

예술 활동과 그 매력을 확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프랑스 사진작가인 '에젠느 앗제(Eugene Atget)'의 작품이자 19세기 파리의 풍경을 담은 오리지널 프린트 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획초대전과 지역 사진작가 초대전, 사진가 켈트 기획전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재단에서 운영 중인 전북 소풍트래블러ounge 외부에서는 소풍관광을 상징하는 캐리어 모양의 설치 작품도 전시될 예정이다.

모든 방문객은 전시회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제10회 전국 품바명인전

2023년 6월 2일 전주풍남문화광장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올해 출연하는 명인들



이주일



홍도



광범



국민MC - 서정우



초대 가수 - 진국익